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5. 5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한-캐나다 FTA후 관세 더 올랐다” 관련 보도에
대한 해명 (‘15.5.20, 내일신문)

1. 보도 내용

- ☐ 캐나다는 ‘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(GPT)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
키로 하여, 한-캐나다 FT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산 제품에
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됨
- ☐ 한-캐나다 FTA 협상 당시,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협상에 임했
는지, 알았다면 왜 적극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GPT 제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관세혜택을 제공
하는 것으로 양자 간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FTA 협상의 논의
대상과는 별개이나,
 - 정부는 한-캐나다 FTA 협상 당시 **캐나다의 GPT 철폐계획***을 반영
하여, 우리측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
- * GPT(General Preferential Tariff) :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하여 개도국 제품에
일방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(GSP)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‘74년부터 실시
하였으며, 13년 10월 176개 대상국가 중 72개국에 대한 GPT 철폐계획을 발표
- ☐ 그 결과, 설탕과자 등의 품목에 대하여 MFN 관세율(9.5%) 보다
낮은 품목세율(6.0%)를 ‘15.1.1일부터 적용 받게 되었으며 향후 3년
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
 - **한-캐 FTA가 발효 초기인 점을 감안, 현재 GPT보다 높은 관세율이
적용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며, 향후 관세
철폐에 따라 연차적으로 관세인하 효과는 더 커질 예정**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(044-203-5750)